

트리거/소재 주의: 동물에 비유하는 욕설 표현, 가부장적 발언, 불쾌하게 와닿을 수 있는 연애사

안내사항

: 오너

- 캐릭터를 향한 모든 롤플레이는 커뮤니티 수위 기준 내에서 조율 없이 가능합니다. 신체/언어적 폭력도 다른 분들을 위한 경고 문구만 달아 주시면 됩니다. 루드비크를 향한 매도와 비난, 언젠든 환영합니다. 제 쪽에서는 선 넘은 행동 같을 시 먼저 조율 디엠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 되도록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만약 48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마음이 짝혀 있지 않음에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실수로 스루한 것이니 마음을 짝혀 알려 주세요. 또한 해당 타래를 마무리짓고 싶을 때는 반드시 마음을 짝습니다.
- 역극은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새 역극 타래의 초반 멘션 두 개까지는 우선적으로 답합니다.

: 캐릭터

- 웬만한 배경 정보(특히 조국과 가족에 대해서는) 1학년 프로필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참조 바랍니다.
- 이 자식...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에 나름대로 열중하게 되었지만 자기가 쓸모없다고 느끼는 과목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3학년 즈음부터는 떠들썩하게 연애도 하고 다니며, 머글이 마법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더 격렬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1학년 시절보다 사고를 자주 칩니다. 주로 슬리데린 내부에서요.
- 가족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 마리아 칼리노프스카 (마법 정부의 국제 마법 협력부 산하 국제 마법 무역 기준 관리과 말단 직원, 영국 런던 거주)

삼촌: 크쥐시토프 칼리노프스키 (레닌 조선소 노동자, 폴란드 그단스크 거주) → 4학년 학기가 시작한 뒤로 삼촌 이야기를 전혀 입에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곧잘 보내던 편지도 끊겼습니다.

부친: ? (소련 거주)

- 주변인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인 및 펜팔 상대: 바버라 로즈워드 (영국인, 순수혈통, 슬리데린 사감)

친구: 로신 오하라 (아일랜드인, 혼혈, 그리핀도르 4학년생) → 3학년 초반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싸우던 친구인지 원수인지 모를 관계였으나, 지금은 그렇게까지 자주 드잡이질을 해대진 않습니다. 관찰력이 좋은 친구라면 루드비크가 3학년 중반 즈음부터 로신을 어색해하고 있음을 알아챌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들: 샤론 피츠패트릭 (아일랜드인, 머글 태생, 후플푸프 4학년생), 이오아나 도브레스쿠 (루마니아계 영국인, 머글 태생, 그리핀도르 6학년생) → 두 사람과는 현재... 데면데면한 관계입니다.

현 여자친구: 헬렌 하워드 (영국인, 머글 태생, 래번클로 5학년생)

“왜 나죠?”

“매우 지구인다운 질문이군요.
왜 당신일까요? 왜 우리일까요? 왜 무언가일까요?
그냥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필그림 씨.
호박에 갇힌 벌레를 본 적 있나요?”

“예.”

“우리도 이 순간이라는 호박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필그림 씨.
왜냐고 따질 필요가 없죠.”

— 커트 보니컷 <제5도살장>

[담금질과 균열 사이]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그러나 비스와 강은 루비콘 강이 될 수 없다면, 이 도박은...

외관



[이미지 출처 & 다운로드 링크](#)

생각보다 키가 잘 크지 않는 것이 근자의 걱정이다.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제 몸이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거울 앞의 자신은 영락없는 소년이었고 역사 속 영웅, 그러니까 ‘어른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얼굴에는 앓된 티가 역력했다. ‘난 대체 언제쯤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난다.

어른과 아이의 경계는 어디 즈음에 그어져 있을까?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교복을 내려보며 생각했다. 변성기는 끝났다. 당황스러웠지만 ‘어른 남자’가 되려면 겪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2차 성징도 열추 끝나가는 듯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 시작한 것이다. 루드비크는 한 해, 두 해 흘러갈수록 칼미크계 이목구비가 짙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토록 많은 것이 변했는데 여태 어른이 아니라니...’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경계에 서 있었다. 이분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에게 경계됨은 어쩌면 당연하다. 햇빛 아래선 밝게 빛나던 다갈색 고수머리가 그늘 밑에서는 새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때면 마치 바위 같던 인상도 바람이 불고 아이들이 뛰놀자 영락없는 말쑥꾼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소속됨 없이 모호한 거죽과 감정.

하지만 그의 온몸을 가르는 가장 견고한 명암은 겉모습에 있지 않았다.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담금질과 균열 사이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혹은 어른과 아이의 경계—꿈결 같은 어렵풋한 선을 월경하는 순간에 갇혀 있거나...

이름

루드비크 칼리노프스키 | Ludwik Kalinowski

나이 | 학년

14세 | 4학년

국적

영국

혈통

순수 혈통

기숙사

슬리데린

키 | 체형

163cm | 55kg

성별/젠더

법적 성별 남성

-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남성 외의 호칭으로 불리거나 “여자애도 아니고!”란 말을 들으면 불같이 화낸다. 물론 루드비크가 화내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닌지라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몇 명 없다.

성격

영웅주의 / 분란과 충돌 / ‘명예 머글’

이 자식... 변한 게 없다.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기실, 그는 처음 이 학교의 포석을 밟았을 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마침내 발발하고야 만 전쟁을 기꺼워하기라도 하듯 전쟁의 현황을 떠들어대는가 하면, 죽음을 먹는 자의 만행에 분개하며 학생도 민간인도,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몸짓으로도 충분히 분란을 일으켰다. “죽음을 먹는 자의 수법이 과격하긴 하다만은, 덕분에 무능한 머글 태생 총리를 갈아치울 수 있었잖아. 그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틀린 것만도 아니지.” 슬리데린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돌았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들 얼굴에 주먹을 꽂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곱게 자란 순수혈통 아이들의 코피를 터뜨린 찡그린 마리아 칼리노프스카가 치렀고, 덕분에 그는 엄마로부터 무시무시한 하울러를 몇 번이나 받았다(“아 진짜 엄마! 제발 좀!”). 호그와트 전교생들은 이따금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어떤 여자의 딱딱한 폴란드어 잔소리와 고향과 울음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하울러를 받고도 잠잠한 건 며칠뿐, 다시 드잡이질을 하고 다니는 그를 슬리데린에서는 ‘명예 머글놈’, ‘광견’이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그런 그를 정의감 넘치는 투사로 여길 터다. 혹자에게는 영웅이 되고 싶어 날뛰는 이로밖에 보이지 않을 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외따로 서 있을 때 루드비크는 곧잘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곤 중얼거렸다: “왜 나지?”... “왜 지금이지?” 충돌만 불러일으킬 따름인 답이 돌아오지 않는 물음들이다. 그렇기에 분란은 차라리 즐거웠다. 목청껏 소리 지르거나 싸움박질에 열중하면, 그 순간의 지겨움과 불안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

지팡이

서양호랑가시나무 | 용의 심금 | 11인치 | 휘지 않는

- 입학할 때 장만한 지팡이는 하도 아무렇게나 다루다 보니 2학년 성탄절 직전에 ‘뚝’ 하고 부러졌다. 일 년 넘도록 버틴 게 용한 지경일까… 하여튼 엄마한테 무진장 혼나면서 새 것을 샀다고 한다.

선택과목

머글학, 산술점

기타

소문에 의하면 불사조 기사단에 입단하려는 것 같다. 기사단과 연을 맺으려 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나이 때문에 반려되었다는 말도 들리고, 본인부터가 이 다음에 반드시 불사조 기사단에 들어갈 거라며 떠돌고 있으니 말이다. 마법사 사회를 업신여기는 것과는 별개로 죽음을 먹는 자가 저지르는 짓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심은 무엇일는지.

마법사 사회에 아주 조금은 익숙해진 걸까? 혹은 익숙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했거나. 1학년 부활절 연극제 이후로 모종의 결심을 한 것 같았다. 학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던 예전과 달리 2학년부터는 비교적 성실하게 임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마법, 변신술,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나, 평소 좋아하는 천문학과 머글학(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산술점 수업만 열심히 듣고 나머지는 쳐다도 안 보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다. 예상 외로 이과 머리라서 산술점 성적이 출중하며, 어둠의 마법 방어술은 가장 열성껏 배우고 있음에도 잘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머글학 수업시간에는… 교수와 머글 태생 학생들마저 학을 뗄 수준의 열의를 보인다고 한다.

학교 생활의 변화는 그 외에도 세 가지 더 있었다. 첫 번째는 슬리데린의 퀴디치 선수가 된 것이다. 포지션은 추격꾼이지만 그가 정말 잘하는 건 ‘어그로 끌기’다. 지상의 관객석에까지 들릴 만큼 커다란 소리로 이 돼지 놈들 가만 안둬 어찌고 고함을 질러대니, 상대팀 선수들로서는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 슬리데린 학생들 사이의 평판이 ‘퀴디치 경기가 있는 날에만 믿음직스러워진다’일 정도로 어그로꾼… 아니 추격꾼 역할을 잘하는 듯하다. 루드비크 개인으로서는 퀴디치가 마법사들의 웃긴 놀음이라는 생각은 그대로였으나,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니 만족스럽고,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니 즐거웠다.

두 번째는 연애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3학년 때 후플푸프의 수줍음 많고 조용한 여학생 샤론 피츠파트릭과 사귀었으나, 한 달만에 빗자루로 두들겨 맞으며 이별을 통보당했다. 피츠파트릭이 엉엉 울면서(“내 마음을 배신했어! 이 나쁜 놈아!...”) 학교 복도에서 루드비크를 쥐어패는 장면은 아직도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헤어진 이유를 두 사람 모두 함구한 탓도 있었다. 어쨌든 루드비크가 잘못했을 거라는 추측이 제일 많다.
- 그렇게 얻어맞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인 그리핀도르의 퀴디치 선수 이오아나 도브레스쿠와 사귀었다. ‘슬리데린의 광견 칼리노프스키가 여친한테 다정하게 뽀뽀하는 거 봄’ 사건이 속출했다(목격자들은 충격 때문에 병동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몇 달 뒤 도브레스쿠와도 헤어졌다. 도브레스쿠 왈, “좀 질리더라고.”
- 현재는 래번클로의 암전하고 조금 권위적인 모범생 헬렌 하워드와 사귀고 있다.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그런데 그때, 호그와트의 몇몇 학생은 루드비크의 연애 상대들의 교집합 하나를 깨달았다. “칼리노프스키 이 자식... 머글 태생 여자애들하고만 사귀고 있지 않아? 와, 소름끼쳐...”

세 번째는 3학년 들어서 폴란드와 공산주의에 대해, 그리고 4학년 들어서는 삼촌을 잘 언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가지고 다니며 자랑하던 노동 공로 훈장은 집에 두고 왔는지 안 보이고, 걸핏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우리 크쥐시토프 삼촌이 말이야...”라며 들먹이던 말도 돌연 그의 입에서 사라졌다. 습관처럼 이야길 꺼내다가 입을 다무는 일도 종종 있었다. 더 굵직한 변화들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이다. 어쩌면 이젠 조국이나 삼촌 자랑이 부끄러워진 걸까? 이것은 보다 견고해지기 위한 담금질일까, 균열일까.

소지품

- 1959년산 니콘 F. 일본에서 발매된 필름 카메라. 흑백 필름 두 통도 같이 학교에 가져왔다.
- 온갖 종류의 전차, 군용기, 군함, 병졸, 미사일 장난감 모형(컬렉션이 늘었다). 보통은 자기 방 침대 밑에 소중히 보관해둔다.
- 가족사진. 1974년에 새로 찍었고, 움직이지 않는다. 정사각형 컬러 사진 안에는 어머니, 삼촌, 그리고 루드비크의 모습이 있다. 예전 것과 함께 언제나 품 안에 간직한다.

관계

에디스 애스턴

전쟁 및 혈통차별 관련 화제를 꺼리는 에디스에게, 루드비크는 어느 날 강경하게 물어 보았다. “그래서 이게 옳은 거냐고, 틀린 거냐고! 예 아니면 아니오만큼 간단한 질문이잖아, 근데 자꾸 모르는 척이야? 제대로 대답 안 하면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그때 들은 대답에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지만… ‘애스턴은… 저 애가 취하는 태도는 정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워. 대체 왜?’ 팽팽한 실이 두 사람 사이에 묶여 있는 것만 같다. 언젠가는 끊어지게 될까? ‘그때 우리는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힐데가르트 마치

샤론과는 헤어진 다음에도 이따금 대화는 나누곤 했다. 루드비크가 다시 한 번 샤론에게 ‘헤어진 이유’에 관해 사과하러 갔을 때, 거기까진 나쁠 게 없었지만, (아니, 루드비크에게는 이미 모든 게 버티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걸… 하필 마치에게 들켰다는 건, 정말 최악이다…’) 우연히 그 근처에 힐데가르트가 있었다는 것이 스케르초의 시작을 알렸다. ‘전부 들었겠지? 분명 그럴 거야. …남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기실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연회장에선 얻어맞고, 만날 때마다 시비가 튄다. 그러나 루드비크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반격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가 힐데가르트를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카일 클라크

“로마? 흥, 로마는 한물 갔지… 무솔리니의 공격은 프랑스 산악사단에 막힌 거 보면 모르냐?”

근대 전쟁사 밀덕과 고대 전쟁사 역덕의 만남…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카일이 루드비크의 영향으로 근대 전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덕질메이트가 되었다. 머글학 시간이면 옆자리에 앉아서 장난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다. 서로 죽이 척척 잘 맞는 친구 관계였다. ‘애인이 자주 바뀌던데 여자애 좀 소개해달라’는 카일의 요청엔 이상할 정도로 ‘잘 모르겠다’고 넘기는 것만 빼면.

줄리아 라이네케

차라리 그때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절 연극제 이후 회복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줄리아가 슬리데린의 차별주의자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할 즈음 다시 붕괴하고 만다. ‘왜? 도대체 네가 왜… 그때 나한테 말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나? 난…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잉크웬스 무리와 루드비크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던 날. 줄리아는 루드비크에게 지팡이를 겨누어서까지 그를 막아냈고, 충격으로 얼어붙은 루드비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지금은 루드비크 쪽에서 줄리아를 피하고 있다. 1학년 때와는 정반대로 흘러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명이다.

레이먼드 메르체

샤론과의 이별, 그리고 그 ‘이유’를 말했을 때 레이먼드로부터 돌아온 답변을 항상 곱씹는다(“와, 우리 루디오도 쓰레기 같은 짓을 하네?”). 레이먼드 입장에선 장난조로 던진 말이었을 텐데도 그게 여전히 목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장벽이 서 있는 것만 같다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저 아이에게 ‘인정’을 받아내야 한다고… 루드비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 생각했다.

바로 그래서 레이먼드가 보는 앞에서는 순혈주의자 학생들과 더 자주, 더 격렬하게 싸우려 든다. ‘너라면 내가 쓰레기더라도 같이 싸워 주겠지? 적어도 이럴 때만은 우리 사이에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유진 로즈웰

루드비크는 유진이 차별의식을 드러낼 때마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후려갈겼다. 여기까진 슬리데린의 평범한 일상이다. 문제는 마리아 칼리노프스카가 로즈웰 가문의 순수혈통 사교모임에 다니자고 했을 때 시작되었다. 엄마가 지켜보는 그곳에선 도무지… 유진을 흠씬 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유진은 자기 양친을 통해 얻어맞은 일에 대한 사과까지 받아냈다. 엄마가 얼마나 성화를 부리며 ‘로즈웰 가의 도련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나무랐는지… “제기랄!” 그래서 학교에서 유진과 마주치면 더 자주 패기로 마음먹었다.

타톨랑 하펜사이트

샤론과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아침을 떠는 타톨랑에게 완강하게 입을 다물었던 루드비크였다. 루드비크 안의 그는… 에스마일을 사용해서 헨의 엉덩이를 때리는… ‘경박한’ 동급생 이미지였다. ‘죄다 말하고 다닐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슬리데린 기숙사 휴게실에서 삼촌에게 보낼 수 없었던 어떤 편지를 쓰다 말고 깜빡 잠들었다가 깰 때, 그걸 읽고 있던 타톨랑을 보고 말았다면… … “너… 제발…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기만 해 봐, 진짜… 가만 안 둘 거니까…” 하필이면 타톨랑에게 ‘약점’을 잡혔다. 그렇게 믿었다.

이디스 머레이

‘넌 머글 출신이면서 왜 분노하지 않아?’ 이디스가 기숙사 내부에서 괴롭힘당하던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이어진 의문이다: 왜?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노동자의 존귀함이 마땅한 사실이듯 네가 그런 말을 들어선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너는 마치 저 자식들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것처럼…’

그가 반격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이디스 ‘개인’을 향한 차별 발언이 아닐 때조차 그를 그 상황에 끌고 들어가는 것은, (“너희 지금 뭐라고 지껄었냐? 그딴 더러운 말, 머글 태생인 머레이 앞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핀갈 모이레 모레이

먹살 잡고 싸우던 건 예전 일이다. 두 사람은 그날의 약속 이후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둘이서 같이 하는 게 주로… 머글의 전쟁과 정치와 무기에 관한 이야길 나누는 것인지라, 그리고 이 분야에선 루드비크가 지나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라 핀갈에게 어떠한 개념을 자꾸 주입하고 있다. “내 말 따라해! 미국은 악의 축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자!!!” 물론 이런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화인지 궁금하다면, 두 사람이 끝없는 갑론을박을 주고받는 도서관 한구석에 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헨 홉킨스

‘시대는 다만 흘러가고, 사진은 그때 그대로의 너를 각인한다. 우리는 군인 혹은 개혁가가 되고 싶어 지팡이를 쥐거나 활자에 천착한다... 하지만 홉킨스, 개혁은 미온적이다. 지금 당장 체제를 파괴하고 반동분자를 숙청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타협주의로 귀결될 것이다. 네가 우리 엄마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결국 타협을 택한 거잖아. 너,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 ...너의 스킵 형도 과연 그럴까?’

3학년으로 올라갈 즈음부터 헨에게서 어둠의 마법 방어술 1:1 교습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좀처럼 오르지 않던 성적도 꽤 괜찮아졌다! 보답이라기엔 뭣 했지만 헨을 자기 집에 몇 번 초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칼리노프스키네 집에는 이름이 뭐냐고 묻기 전에 혈통과 가문부터 물어 보는 루드비크의 엄마가 있었다. ‘엄마도 진짜!...’ 덕분에 헨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긴 했으나.

에스마일 시프

주의사항: 미스젠더링, 호모포비아

‘너는 나의 악몽이다.’ 1학년의 그날, 병동에서 모르거나 가민(으로 변한 에스마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루드비크는 이성을 잃고 사색이 되어 도망쳤다. 그 이후로 에스마일은 의도적으로 가민의 모습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몇 번이나 트라우마가 재상영되었고, 그게 에스마일의 고의였음을 알게 되자 썰 것도 없이 달려들어 두들겨 팼다.

이 깊은 증오에 썩기를 박은 결정적인 사건은 에스마일이 어느 남학생을 짝사랑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적이였다. ‘뭐? 남자가, 남자를?...’ 에스마일 시프는 루드비크 칼리노프스키의 악몽이다. 왜냐면, ‘그런 건 절대로, 절대로 정상이 아니니까... ...’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매들이여!
산과 숲과 계곡을 넘어 날아가거라...
울려라, 울려라, 울려라, 작은 종을...
나의 초원에서 살아가는 어린 종달새여!

폴란드 민요 <매들이여>